

미이스 반 데르 로에 주택과 르 꼬르뷔제 주택의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f the Houses of Mies van der Rohe and Le Corbusier

김용립* / Kim, Yong-Rhip

Abstract

There are probably no architects of the 20th Century who had more influence on modern architecture than Mies van der Rohe and Le Corbusier. Although the two architects share one thing in common, namely, both are master of modernism, each has developed unique architecture of his own.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their works through a comparison analysis of the ideas, design principles and architectural language reflected in the works, focusing on the houses. this study will also aim to provide a foundation for a new design that harmonizes the design principles and architectural language of the two.

Through the study the following common points and differences were found between the houses of the two.

A) Common points: Both architects avoided ornamentation in houses while placing weight on the functions of houses and they tried to plan rational floor plans by separating the wall from the structure. B) Differences: ① The houses of Mies express the structure in a straightforward manner, while those of Corbusier are formative houses focusing more on shapes. ② The shapes of the houses of Mies are limited to basic shapes, quadrangle while those of Corbusier employ various geometric curves. ③ Using steel and glass, the houses of Mies are light and transparent. On the contrary, using concrete, the houses of Corbusier are somewhat bulky with Three-dimensional changes. ④ The houses of Mies show the value of moderation based upon the classical principles of design, while the houses of Corbusier show the value of moderation based upon geometry. ⑤ The houses of Mies feature horizontal interiors with flexibility. However, Corbusier's houses have vertical interiors with some changes in the cross sections. ⑥ In terms of material, the interiors of Mies' houses employ materials with various tones and textures, while interiors of Corbusier's houses are painted in simple white. Summing up these characteristics, it could be said that the houses of Mies have logical and rational beauty, whereas the houses of Corbusier have more emotional beauty.

키워드 : 건축작가, 주택작품

1. 서론

20세기를 산 위대한 건축가, 미이스 반 데르 로에(Mies van der Rohe)와 르 꼬르뷔제(Le Corbusier)는 근대건축을 선도한 양대 산맥으로 평가되어진다. 고전적 건축의 틀에서 벗어나, 철과 콘크리트, 유리를 사용하며 장식이 배제된 새로운 형식의 건축을 발전시킨 두 사람은 공통적으로 모더니즘 건축의 거장으로 불리고 있으나 각각 서로와는 다른 자신만의 독특한 건축 세계를 확립하였다.

‘구조적 질서’¹⁾를 존중하는 미이스 건축의 특성이 건물의 구조

를 솔직히 표현한 데에 있다면 기하학적 형태요소를 활용하는 르 꼬르뷔제 건축의 특성은 조각품과도 같은 뛰어난 조형성에서 찾을 수 있다. 미이스 건축에서 구조와 재료, 기술이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과 비교하여 르 꼬르뷔제 건축에서는 항상 기하학과 기초입체, 형태요소가 연구대상이 되었는데 이러한 사실은 구조를 정직하게 표현하는 것 외에 어떠한 인위적 형태도 배척했던 미이스의 철학과 새로운 형태를 찾고자 끊임없이 노력했던 르 꼬르뷔제의 태도를 잘 반영하고 있다.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현대 건축가들 중 미이스나 르 꼬르뷔제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은 없다 하여도 지나친 말은

* 정회원, 상명대학교 디자인학부 실내디자인전공 교수

1)Werner Blaser, Mies van der Rohe / The Art of Structure, (Birkhauser Verlag: Basel, 1993), p.11

아닐 것이다. 건축구조물의 순수한 아름다움을 추구한 미이스의 정신과 구조로부터 파생된 그리드를 활용하는 설계법. 육면체, 원기둥, 원추 등 기초적 입체를 적용하여 고전적 건축과는 다른 새 형태를 찾고자 한 꼬르뷔제의 생각과 벽난로, 기둥, 계단 등을 분리하여 구성요소로 활용하는 설계방식. 이 같은 두 거장의 사상과 원칙은 리처드 마이어(Richard Meier)나 찰스 구아쓰미(Charles Gwathmey), 마리오 보타(Mario Botta)와 같은 현대 작가들의 작품에 적용되어 나타난다.

제한된 공간 안에 수면과 식사, 휴식과 학습, 생리적 욕구 해결 등 생활의 대부분의 행위를 수용하여야 하는 주택은 흔히 건축가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실험하고 확인하는 좋은 터가 되어준다. 적지 않은 건축가들이 이와 같은 주택작품을 통해 자신들의 원칙과 언어를 발전시켜왔다. 미이스와 꼬르뷔제에 의해 발전된 건축사상과 설계원칙 역시 주택작품을 통해 시험되고 수정되면서 확고해졌다 볼 수 있겠는데 두 거장의 주택작품을 비교함으로써 이들의 건축이 발전되어온 과정을 살펴볼 수 있으며 건축특성을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주택작품을 중심으로, 그 곳에 나타난 미이스와 꼬르뷔제의 철학과 설계원칙, 건축언어를 비교하여 그 특성을 파악하는 데 있다. 아울러, 본 연구가 이들의 건축원칙과 언어를 조화시킨 새로운 디자인이 모색되도록 기초를 마련해 줄 수 있기를 희망한다.

2. 건축사상과 설계원칙

2.1. 미이스의 철학과 원칙

(1) 건축수업배경

1886년 독일의 아헨에서 석공의 아들로 태어난 미이스는 누구보다도 일찍 건축실무에 발을 들여 놓았다. 16세에 아헨의 한 설계사무실에서 견습생으로 실무를 시작한 그는 브루노 파울(Bruno Paul)과 피터 베렌스(Peter Behrens)의 사무실을 거치며 가구와 건축설계에 관한 기초를 익혔다. 브루노의 사무실에서는 목재에 대하여, 베렌스의 사무실에서는 고전주의적 건축의 비례와 구조적 질서, 디테일에 대하여 배울 수 있었다. 베렌스의 사무실에서 일하는 동안 그는 다른 한 사람의 스승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은 그의 건축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 스투, 헨드릭 페트루스 베르라게(Hendrik Petrus Berlage)였다. 베르라게는 벽돌을 잘 사용하였으며 공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축가였는데 미이스는 그로부터 벽돌공사의 디테일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구조를 드러내는 솔직한 건축을 배웠다. 독립한 건축가로서의 미이스는 독일공작연맹, 그룹 G와 같은 단체를 이끌기도 하고 바우하우스의 확장직을 맡기도 하며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하지만 나치가 집권한 후 미국이주를 꿈꾸게 되었고

그런 미이스에게 시카고, 아모르 공과대학의 확장직이 제안되었다. 시카고로 이주한 미이스는 미국의 발달된 철골구조와 만나게 되며 그 곳에서 습득한 철골구조에 관한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개념의 건축을 발전시켰다.

(2) 건축의 특성과 원칙

베렌스의 사무실에서 칼 프리드리히 쉴켈(Karl Friedrich Schinkel)의 작품을 연구하는 동안 미이스는 고전주의적 건축의 비례와 리듬을 익혔다. 비례, 리듬, 균형과 같은 디자인의 고전적 원칙은 인위적인 형태요소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미이스의 건축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 기본원칙으로 자리하게 된다. 그의 건축은, 외관에서, 수직을 강조하던 수평을 강조하던 수평과 수직을 명확히 하며 나름대로 완벽한 비례를 보여준다. 반듯한 기단 위에 균형을 잡으며 반복되는 구조에 의해 질서가 부여되는 그의 건축에서는 다른 근대작가의 작품에서는 느낄 수 없는 기품을 느낄 수 있다.

장식의 배제는 고전주의적 건축으로부터 모더니즘 건축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미이스의 건축은 장식 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인위적인 형태마저 거부한다. 미이스에게 디자인의 목표는 건축구조물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일이었다. 이 같은 건축의 바탕에는 진실만을 통해 아름다움에 이를 수 있다는 철학이 깔려있다. 따라서 미이스의 건축에서 디자인의 대상은 건축구조물 자체로 제한되며 필요하지 않는 형태는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미이스는 디자인 대상, 건축구조물을 다시 '뼈대와 외피'로 구별하였으며 건축의 본질이 되는 뼈대와 외피의 표현을 통해 아름다움에 이르고자 하였다.<그림 1> 장식의 배제가 고전적 건축과 모더니즘 건축을 구분하듯 의도적인 형태요소의 배제는 꼬르뷔제의 건축과 미이스의 건축을 구별 짓는 요인이 된다.

재료의 관점에서 볼 때 미이스의 건축은 철과 유리와 돌의 건축이라 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재료는 그의 건축에서 각각 역할을 달리한다. 철이 주로 건축물의 구조재로 쓰여 지는 것과 비교하여 유리는 외피가 되는 외벽재로 쓰여 지며 석재는 표면의 표현성을 살려 표현재로서 쓰여 진다. 철과 유리를 사용하는 설계법은 미국이주 후 더욱 명확해 졌는데 장 스팬(Span) 건축물을 실현하며, 유리벽을 본격적으로 채택하며 구조미가 강조된 투명한 건축을 구현하게 된다. 미이스의 유리벽은 얇고 가벼운 외벽을 가능하게 하여 하중을 줄여줄 뿐 아니라 실내와 옥외공간의 구별을 허물어 하나 되게 하는 효력을 발생시킨다. 어려서부터 돌을 보며 자란 미이스는 특히 돌의 표현성에 주목하였는데 그의 건축에서 아름다운 결과 색상을 드러내는 석재는 건조하게 흐를 수 있는 그의 실내를 풍요롭게 하여주게 된다.

2) Peter Black, 현대건축의 거장/ 미이스 반 테어 로에, 윤정섭 역, (서울: 건우사, 1989), p.33

미이스의 주택에서 실내의 특성은 자유로움에 있다할 수 있다. 욕실을 제외한 대부분의 실내는 간헐적이 아니며 '끝없이 유동하여'³⁾ 하나의 실내가 된다. 그것은 기능적으로 필요한 곳만을 구분하도록 의도된 내벽이 공간의 흐름을 자유롭게 하기 때문이다. 실내공간은 또한 내부에만 머물러있지 않으며 커다란 유리벽을 넘어 외부와 교통한다. 투명한 유리벽은 외기만을 차단한 채 시각적으로는 실내와 옥외공간을 연결한다. 미이스의 주택에서 내벽과 유리벽은 차단과 흐름을 적절히 통제하며 보호와 개방을 교묘하게 조절하게 된다.

구조로부터 이끌어낸 그리드(Grid)는 미이스의 건축에서 구성의 기초가 된다. 평면에서 보여 지는 그리드가 기둥간격을 등분하는 선인 것과 비교하여 입면에 나타나는 그리드는 기둥간격과 층고를 분할하는 선으로서 모두 구조로부터 파생되었다 할 수 있다. 평면의 그리드는 벽을 세우거나 가구를 배치할 때, 심지어는 조각과 같은 미술품을 배치할 때 배치의 단위가 되어 준다. 입면에 나타나는 그리드 또한 창의 비례를 조정하는 데 역할을 하게 되며 크고 작은 사각형 창이 전체 입면과 조화되게 한다. 미이스의 건축은 그리드에 의해 통일성과 함께 융통성을 부여받게 되며 질서와 변화를 유지하게 된다.

2.2. 꼬르뷔제의 철학과 원칙

(1) 건축수업배경

꼬르뷔제는 1887년 쇼 드폰이라 불리는 스위스의 조그마한 도시에서 시계공의 아들로 태어났다. 14살의 어린 나이에 쇼 드폰의 미술학교에 입학한 그는 샤르르 레플라트니에(Charles L' Eplattenier)라는 훌륭한 스승을 만나 미술의 기초를 익혔다. 레플라트니에는 꼬르뷔제에게 건축을 공부하도록 권유하였으며 실제로 미술학교 평의원의 주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주선해 주기도 하였다.⁴⁾ 처음으로 의뢰받은 주택설계를 계기로 꼬르뷔제는 스위스를 떠나 이탈리아 지중해 연안을 여행하게 되는데 여행을 통해 만난 형태가 풍부한 건축물들은 그가 조형적 건축가로 성장해 나가는 데 역할을 하게 된다. 꼬르뷔제가 청년으로 자라던 시기는 피카소(Picasso)나 브라크(Braque) 같은 입체파, 큐비즘의 화가들이 기하학적 요소들을 적용한 회화들을 발표하기 시작한 때였다. 새로운 건축을 추구하던 꼬르뷔제에게 일상의 형태를 기하학적 요소로 단순화시켜 표현하는 이들의 회화는 건축형태의 새로운 방향을 암시하였다. 20세가 되는 해에 꼬르뷔제는 파리를 방문하였는데 그 곳에서 또 한사람의 스승, 오구스트 페레(Auguste Perret)를 만나게 된다. 페레는 당시로서는 흔치 않았던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건축가였으며 콘크리트

의 표면을 노출시키는 대담한 시공법을 선보였다. 페레의 사무실을 떠난 후 꼬르뷔제는 잠시 미이스가 일하던 베렌스의 사무실에서 건축을 배우기도 했다. 베렌스는 한동안 A.E.G.의 일을 맡았었는데 그는 공장의 설계 뿐 아니라 조명기구, 싸인 디자인까지도 총괄하였다. 꼬르뷔제는 베렌스를 위해 일하며 공업제품과 '기계미술'⁵⁾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었다.

(2) 건축사상과 원칙

장식을 위한 장식을 거부한다는 점에서 꼬르뷔제의 건축은 미이스의 건축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 하지만, 특별한 형태요소를 채택하지 않으며 건축구조물 자체를 솔직하게 표현하고자 하였던 미이스의 생각과 가능한 형태요소들을 심본 활용하여 자신의 건축에 형태를 부여하고자 노력하였던 꼬르뷔제의 생각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보여 진다. 그는 다양한 곡선벽을 개발하여 사용하였을 뿐 아니라 기둥과 벽난로, 계단과 지붕 등의 요소들을 독립된 조형개체로 활용하여 자신의 건축을 형태적으로 풍요롭게 하였다.

근대의 다른 작가들이 그러하였듯이 꼬르뷔제 또한 새로운 형태를 찾기 위해 노력하였다. 한때 그는 그 가능성을 아르누보의 자연적 곡선에서 찾고자 하였지만 곧바로 자연곡선의 한계성을 간파하고 새로운 형태를 찾게 된다. 당시, 큐비즘이나 구성주의와 같은 미술운동은 꼬르뷔제로 하여금 기하학적 형태로 눈을 돌리게 하였는데 지중해 연안 여행을 통해 경험한 그리스와 로마의 고대건축에 대한 기억 역시 기하학적 형태에 관한 가능성을 확인케 했다. 그는 수학적으로 절제된 형태, 즉 사각형과 원, 삼각형과 같은 평면형태와 육면체를 비롯한 구, 원기둥, 원추, 삼각뿔과 같은 입체형태야말로 자신의 건축을 조형적으로 풍요롭게 해줄 새로운 형태라 믿었다. 아르누보의 방임적인 자유곡선과 비교하여 수학적으로 절제된 형태는 스스로 질서를 내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정확하게 작도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형들만 만들 수 있다면 어떠한 형태도 지을 수 있는 콘크리트는 꼬르뷔제의 조형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재료였다. 1955년 완성된 롱샹교회(Ronchamp)는 콘크리트의 풍부한 성형성과 꼬르뷔제의 조형적 재능이 만나 이루어낸 대표적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교회에 형태를 가져다주는 다양한 모양의 곡선 벽과 공중에 살짝 들려있는 듯한 육중한 곡선 지붕의 표현은 콘크리트가 아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그림 2>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건축가들에게 한계가 없는 듯 보이는 콘크리트의 성형성은 때로는 오히려 절제해야할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건축에서 절제되지 않은 형태는 무질서로 흐르기 쉽기 때문이다. 꼬르뷔제는 기하학적 형태요소를 채택함으로써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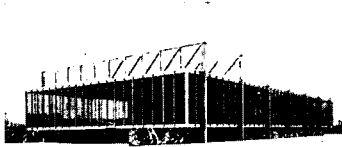
5) Peter Black, 현대건축의 거장/ 르 꼬르뷔제, 윤정섭 역, (서울: 건우사, 1993), p.31

3) Architectural Monographs, Mies van der Rohe, 이민 역, (서울: 공간도서, 1989), p.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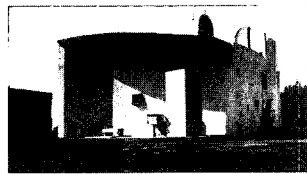
4) Stanislaus Von. Moos, 르 꼬르뷔제의 생애 / 건축의 신화, 최창길 역, (서울: 기문당, 1989), pp.19-24

쾨르뷔제는 건축의 산업화에 큰 관심을 보였다. 1914년에 제안된 돔이노 이론에는 기둥과 슬라브, 계단과 같은 건축의 주요구조를 공장에서 대량생산하여 일반 소시민에게도 높은 품질의 주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의지가 배어있다. 그는 산업기술을 기반으로 대량생산되는, 효율이 높은 기계제품을 동경하였으며 첨단 기술이 집적되는 자동차와 선박, 기차, 비행기를 모델로 건축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기도 하였다.

1926년 쾨르뷔제에 의해 발표된 '새로운 건축의 5형식'⁶⁾에는 자연을 보존하고자 하는 그의 생각과 기능, 조형을 중시하는 그의 건축관이 요약되어 나타난다. 그는 '필로티'와 '옥상정원'을 통해 대지훼손의 최소화와 훼손된 대지의 회복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주요 생활공간을 지면의 습기로부터 보호한다, 건축에 자연을 도입한다는 등 새로운 개념의 주거건축을 제안하였다.⁷⁾ 또한 '자유로운 평면', '자유로운 입면', '수평으로 긴 창'을 통해서 자유가 강조된 건축을 소개하였는데⁸⁾ 이 세 가지 원칙은 건축구조물의 하중을 기둥 등 구조요소에 집중시킴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자유, 즉 기능이나 작가의 조형적의지에 따라 계획할 수 있는 자유를 내포하고 있다.



<그림 1> 미이스의 만하임 국립극장 계획안



<그림 2> 쾨르뷔제의 룬상교회

2.3. 건축수업배경과 건축특성 비교

(1) 건축수업배경 비교

미이스와 쾨르뷔제는 어쩌면 태생에서부터 건축의 다른 길을 걷도록 운명지어졌는지도 모른다. 독일 태생의 미이스가 독일인 특유의 합리성을 안고 태어났다면 프랑스인의 피를 이어 받은 쾨르뷔제가 프랑스인의 예술적 기질을 타고 났을 것이라 생각하는 일이 지나친 비약만은 아닐 것이다. 두 사람이 건축을 익혀온 길을 비교해 보는 일은 흥미로운 일이다. 중학교 정도의 교육을 마친 후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미이스는 현장체험과 실무를 통해서 건축을 배웠다. 현장에서 석재를 비롯한 목재, 벽돌, 철의 특성을 하나하나 익히고 다루는 법을 배운 것이다. 이에 비교해 쾨르뷔제는 쇼 드퐁의 미술학교에서 훌륭한 선생님의 충애를 받으며 미술의 기초를 다졌으며 여행을 통해 형태가 풍부한 건축을 만나고 건축의 폭을 넓혀 나갔다. 이것은 두 사람이 건축을 만났을 때, 건축의 다른 측면을 만났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미이스가 건축의 재료와 기술을 먼저 만

난 것에 반해 쾨르뷔제는 건축의 형태와 먼저 대면했음을 의미하게 된다. 이 같이 현장과 실무를 통해 건축을 만나고 고전 건축의 원칙을 배운 미이스와 미술학교에서 조형적 기초를 익히고 여행을 통해 건축의 형태와 만나며 건축의 산업화와 공업 미술에 관심을 갖게 된 쾨르뷔제는 이미 시작 단계에서부터 서로 다른 건축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2) 건축적 특성 비교

사람들이 어떤 사물을 대면할 때 첫 느낌은 매우 중요하다. 후에 그 사물을 다시 기억할 때, 대부분 첫 인상과 함께 그 사물을 떠올리게 된다. 두 사람이 처음 건축을 만났을 때 어떠한 각도에서 만났으며 어떠한 과정을 통해 건축을 배웠는가를 살펴보는 일은 그래서 의미가 있다. 시작부터 현장과 실무를 통해 건축을 만나고 익힌 미이스는 재료와 기술에 높은 가치를 두고 구조를 우선시 하는 건축을 추구한 반면 어려서부터 조형적 기반을 튼튼히 하고 여행을 통해 건축의 풍부한 형태를 만난 쾨르뷔제는 건축의 형태에 가치를 두는 조형성이 풍부한 건축을 추구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들의 이 같은 가치관은 이들이 사용한 재료와 어떠한 상관성을 가질까? 구조를 중시하고 그것을 솔직하게 표현하고자 했던 미이스가 틀을 세우고 틀 사이의 공간을 채우는 그러한 구조와 재료가 이끌렸음은 당연한 결과였으며 건축물의 형태에 높은 가치를 둔 쾨르뷔제가 형태적 가능성을 무한히 내포하고 있는 콘크리트에 매료되었던 것 또한 자연스런 결과라 할 수 있겠다. 미이스의 뼈대와 외피의 건축은 후에 철과 유리의 건축으로 귀결되었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두 사람은 이렇게 세워진 건축적 목표와 선택되어진 재료를 위해 그에 적합한 원칙과 수단을 적용하였다. 자신의 건축을 절제하여 질서를 부여하고 가치를 창조하는 수단으로 미이스는 고전적인 디자인 원칙을 고수한 반면 쾨르뷔제는 기하학이라는 새로운 수단을 찾아낸 것이다. 미이스의 균형, 비례, 질서의 원칙이 베렌스의 사무실에서 일하는 동안 채득된 것인 것과 비교한다면 쾨르뷔제의 기하학은 여행을 통해, 그 시대의 미술운동과 공업미술의 분석을 통해 탐구되어진 것이었다.

3. 주택작품 비교분석

3.1. 초기의 주택 안 비교

(1) 벽돌 전원주택 안

1923년 발표된 미이스의 '벽돌 전원주택 안'의 평면은 데 스틸파의 구성작품을 보는 것과 같이 아름답다.⁹⁾ 수평과 수직의 벽에 의해 분할된 방들은 각기 다른 크기와 비례를 지니며 전

6)W. Boesiger and O. Stonorow, ed., Le Corbusier, 8 Vols., 르코르부지에 작품연구회 편역, (서울: 집문사, 1991), Vol. 1, p.125

7)Loc. c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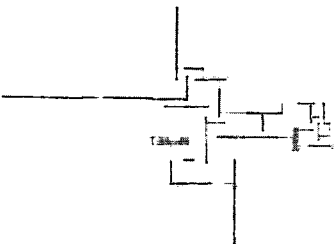
8)Loc. cit.

9)Peter Black, 현대건축의 거장/ 미이스 반 데어 로에, Op. cit., pp.37-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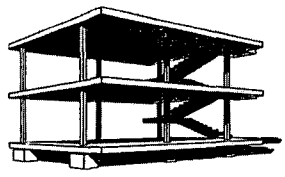
체 평면은 비대칭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두께가 다른, 두텁고 가는 벽돌벽의 선과 얇고 투명한 유리벽의 선은 평면의 구성을 더욱 풍요롭게 하여준다. 방들은 시각적으로 차단되어 있으면서도 하나의 공간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실내를 분할하는 벽은 외부로 뺀어 옥외공간을 정의한다. 실내공간은 유리벽을 넘어 벽돌벽에 의해 정의되는 옥외공간과 교류하도록 계획되었다. 미이스는 이 전원주택 안에서 3차원 공간구성의 문제를 2차원 평면구성으로 단순화시켰다. 면의 분할, 비례, 균형, 변화와 통일 같은 디자인의 원칙을 존중한 평면에는 벽돌쌓기의 섬세한 기법이 분명하게 드러난다.<그림 3> 벽돌 전원주택 안에는 그밖에, 바닥에서 천장까지 연장된 수직창의 기용이 보여진다.

(2) 돔이노 형 주택

전쟁으로 파괴된 지역을 경제적인 방법으로, 빠른 기간 내 복구하기 위한 방안으로 연구되기 시작한 돔이노 형 주택(Dom-ino house, 1914)에는 건축의 산업화를 향한 꼬르뷔제의 열정이 잘 나타나 있다.¹⁰⁾ 꼬르뷔제는 표준화된 주택의 주요 구조부, 즉 바닥판과 지붕판, 기둥, 계단, 기초를 공장에서 엄격한 관리 하에 생산하여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구조와 간막이 벽의 분리, 표준화된 구조의 사용으로 요약될 수 있는 돔이노 형 주택은 건물의 하중을 기둥에 집중시킬 수 있어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평면을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으며 표준화된 부재를 사용함으로써 전체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그림 4>



<그림 3> 벽돌 전원주택 안 평면도



<그림 4> 돔이노 형 주택

(3) 초기의 주택 안 비교분석

미이스와 꼬르뷔제가 자신들의 건축을 찾기 시작 할 무렵, 초기에 발표한 앞의 두 안은 장식에 얽매이지 않은 단순한 구성을 보인다는 점, 모두 재료의 특성과 공법을 이해하고 잘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서로 유사하다. 하지만 고전적인 디자인 원칙에 충실한 벽돌주택이 구성적으로 빈틈이 없는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표준화된 구조를 사용하는 돔이노 형 주택은 주택의 산업화를 제안하고 있어 당시 두 사람의 서로 다른 관심을 알게 한다. 디자인 원칙에 입각하여 빈틈이 없는 벽돌주택과 산업화를 이루어 서민에게도 고품질의 주택을

저가로 공급하고자 한 돔이노 형 주택은 한편으로는 명철한 미이스의 이성과 따뜻한 꼬르뷔제의 인간애를 대비시켜 보여주고 있다. 돔이노 형 주택이 구조와 간막이 벽의 분리라는 커다란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벽돌주택은 실내공간의 시각적 차단과 연결, 외부와 내부공간의 교류, 외부로 뺀어 벽에 의해 정의되는 정원, 바닥에서 천장까지 연장되는 유리벽 등 여러 원칙과 기법들을 제안하고 있다. 꼬르뷔제에 의해 처음 발표된 주택이론이 구조와 간막이 벽을 구분을 표방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 구조로부터 벽을 자유롭게 하고자한 두 사람의 공통적 관심을 확인할 수 있다.

3.2. 발전과정상 주요주택 비교

(1) 미이스의 주요 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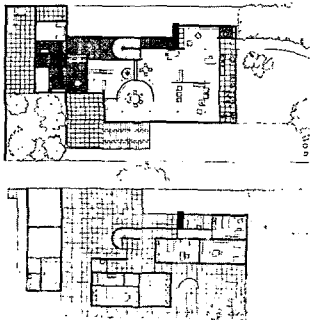
옛 체코슬로바키아의 브르노에 세워진 투겐하트 저택(Tugendhat house, 1930)에서는 바르셀로나 파빌리온(Barcelona pavilion, 1929)에 적용되었던 여러 원칙들이 보여 진다. 1층에는 침실과 서비스 공간, 테라스를 두며 2층에 부엌과 거실을 배치한 투겐하트 저택은 두 층의 평면이 각기 다른 형태를 보인다. 이는 각 층의 평면형태가 수용하는 공간에 적응하여 변화된 까닭으로 이러한 평면계획의 자유는 구조와 간막이 벽의 분리를 통해 건축물의 하중을 기둥에 전담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투겐하트 저택에서는 미이스의 다른 주택에서는 찾기 힘든 곡선 벽이 보여 지는데 계단실 벽과 거실 간막이 벽에 적용된 반원 요소는 딱딱한 사각형 요소가 우세한 저택에 부드러움을 가져다준다. 유리로 둘러진 커다란 거실은 하나의 공간으로 계획되었으나 그 안의 작은 영역들은 간막이 벽에 의해 시각적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의도되었다.<그림 5, 6> 미이스는 거실을 계획할 때 비례가 좋은 벽을 배경으로 가구배치하기를 즐겼는데 이곳에서는 의자와 탁자를 얼룩마노 벽을 배경으로 균형 있게 배치하여 자신의 가구가 미술품과 같이 보여 지도록 하고 있다. 유리벽과 얼룩마노, 크롬으로 도금한 철제 기둥, 간막이 벽의 흑단 등 매끄럽고 광택이 있는 재료가 주를 이루며 흑과 백의 대비가 강한 실내는 깔끔하고 세련된 분위기를 띠게 된다. 크롬 도금한 철제 프레임에 차갑고 매끄러운 가죽으로 덮은 의자나 유리상판을 사용하는 탁자 역시 실내와 일체가 되도록 디자인되었다.<그림 7>

1930년대 초반, 미이스는 뜻을 갖는 교외주택 안을 발전시키는 일에 몰두하고 있었다. 이 때의 교외주택 안 중 대표적인 안으로 '3개의 뜰을 갖는 주택 안'을 들 수 있겠는데 이 안에서 미이스는 커다란 유리벽에 의해 구분된 뜰과 실내가 동일한 벽에 의해 둘러지도록 하며, 실내의 바닥 마감재가 뜰로 연장되도록 하여 뜰과 실내가 시각적으로 하나의 공간이 되도록 취급하였다.¹¹⁾ 여기서의 벽은 외적으로는 외부세계로부터의 시선을 차단하여 주택의 사생활을 보장하며 내적으로는 뜰과 실내의

10) _____, Le Corbusier, 10 Vols., 편집부 편역,(서울: 도서출판 보원, 1994), Vol. 1, p.59

자유로운 교류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 되게 된다. 3개의 틀을 갖는 주택의 평면에서는 또한 조직적인 그리드를 볼 수 있다. 바닥의 그리드는 기둥간격을 등분하는 선으로 벽이나 가구와 같은 구성요소들이 배치할 때 배치의 단위가 되어 주기도 하는데 평면도에 보여 지는 많지 않은 가구는 정사각 그리드를 배경으로 균형 있게 자리하고 있다.<그림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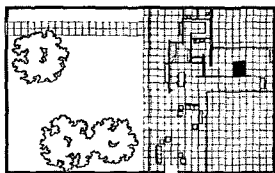
1950년에 계획된 '네 기둥의 유리 주택 안'에는 미국 이주 후, 철골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변모한 미이스 주택의 특성이 잘 나타난다. 정사각형 두개가 포개진 모양의 기단 위에 세워지게 되어 있는 정방형 주택은 네 개의 철골 기둥이 지붕판을 지탱하도록, 네 면이 유리로 둘러지도록 계획되어 철골 뼈대와 유리 외피의 구분이 명확하게 표현되었다. 뜰이 있는 전원주택 안에서와 같이, 설비영역을 제외하고 하나의 공간으로 의도된 유리 주택의 실내공간은 사방의 유리면을 넘어 외부 자연으로 무한히 확장되도록 계획되었다. 주택의 실내를 한정하는 형태로 정사각형이 채택되었지만 주택평면은 정사각형 틀 안에서 자유로운 구성을 보여준다. 중심을 이탈한 코어와 코어 벽을 배경으로 자연스럽게 배치된 의자 및 탁자, 외부 숲을 보도록 놓여진 침대는 대칭의 틀을 벗어난 균형의 아름다움을 잘 표현하고 있다.<그림 9> 가로와 세로가 15.24 m 인 지붕판을 네 개의 기둥으로 지탱하고자 한 이 주택에는 구조의 방해를 받지 않는, 넓은 수평공간을 찾는 연구가 반영되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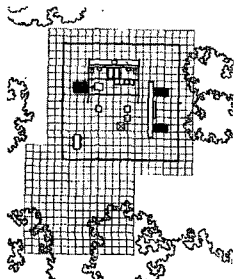
<그림 5, 6> 투겐하트 주택 1, 2층 평면도



<그림 7> 투겐하트 주택 거실



<그림 8> 3개의 틀을 갖는 주택 안 평면도



<그림 9> 네 기둥의 유리 주택 안 평면도

(2) 꼬르뷔제의 주요 주택

1900년대 초, 파리 시내 한 레스토랑의 공간구성을 참고한 시트로안 형 주택(Citrohan house, 1920)은 꼬르뷔제가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주택의 공간개념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긴 사각형 형태의 평면을 갖는 시트로안 형 주택은 주택의 앞부분에 2층 높이를 갖는 거실을 두고 있으며 그 안쪽 깊은 곳, 2개 층으로 나뉘는 곳에 부엌과 침실을 두고 있다. 이러한 구성은 기능적으로 밤과 낮의 공간구분을 분명히 할 뿐 아니라 조형적으로 높고 넓은 거실과 작고 낮은 침실의 공간적 대비를 명확히 하는 특성을 나타낸다. 꼬르뷔제는 거실 전면에 2층 높이의 큰 창을 설치함으로써 거실에 많은 양의 일광을 공급할 수 있도록, 실내 깊은 곳까지 일광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였다. 2층 높이로 트인 넓고 밝은 공간, 거실과 낮고 아늑한 사적 공간, 침실의 대비가 뚜렷한 시트로안 형 주택의 공간구성은 이후 꼬르뷔제 주택의 한 주요 주제로 자리하게 된다.<그림 12>

1922년 파리 근교에 실현된 보크레손 주택(Vaucresson house)에서는 주택의 여러 문제들을 조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애쓴 흔적이 보여 진다. 특히 건축화 한 가구를 활용한 조형작업이 눈길을 끄는데 2층의 벽가구가 대표적 예라 할 수 있다. 꼬르뷔제는 모서리에 곡선이 적용된 목질의 벽과 가구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독특한 형태를 갖는 벽가구를 창조하였다. 이와 같이 조형적으로 해석된 벽가구는 실내에 형태를 가져다주는 요소로서 역할을 할 뿐 아니라 거실과 통로를 구별해 주는 간막이로서, 생활용품을 수납하는 가구로서 세 가지 역할을 하게 된다.<그림 10> 보크레손 주택에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시도는 계단에서 보여 진다. 꼬르뷔제는 주택 본체로부터 계단을 분리시키는 방식으로 계단의 독립을 꾀하였다. 계단과 본체 사이에 수직의 긴 창을 뚫음으로써 계단의 시각적 독립성은 더욱 강화되게 되는데 다른 건축적 요소로부터 분리된 계단은 이후의 주택에서 독자적인 형태요소로서 씌어지게 된다. 정면에 보여 지는 직사각 상자 모양의 내면창과 캐노피, 브라켓 등은 평면적인 단순한 입면에 3차원적 변화를 주고자 한 꼬르뷔제의 노력을 잘 반영하고 있다.<그림 11>

필요에 따라 세부 공간들을 적소에 위치시키고 이를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방식으로 전체 주택을 완성한 라 로쉬 잔네르 주택(La Roche-Jeanneret house, 1923)은 크게 볼 때 그 평면이 'L'자 모양을 띤다. 독신의 미술 수집가와 아이를 둔 부부, 두 세대를 위하여 설계된 라 로쉬 잔네르 주택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개념은 '건축적 산책'¹²⁾이라 할 수 있다.<그림 15> 꼬르뷔제는 사람들이 형태적으로 풍요로운 자신의 주택 실내를 잘 보아주기 원했으며 잘 감상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마련하였다. 라 로쉬 잔네르 주택에서 보여 지는 경사로와 브리지,

11) Werner Blaser, 미스 반 데어 로에, 송춘식 역, (서울: 대우출판사, 1983), p.36

12) _____, Le Corbusier, Op. cit., p.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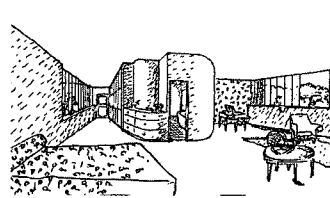
작은 전망소 등이 그러한 방편이라 하겠는데 전시 홀의 오목한 벽을 따라 설치된 경사로는 2층 높이로 트인 넓은 홀을 감상할 수 있도록, 현관 홀 2층에 계획된 브리지와 전망소는 3층 높이로 트인 높은 홀을 감상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그림 13, 14> 오목한 곡면 벽을 가지며 천창에 의해 밝혀지는 전시 홀이나 허공으로 돌출한 전망소를 갖는 변화로운 현관홀은 꼬르뷔제 주택 실내의 조형성을 잘 보여준다. 라 로쉬 잔네르 주택에서는 수평으로 긴 창, 필로타, 옥상정원과 같은 꼬르뷔제 주택의 신 개념이 보여 지기도 한다. 지면으로부터 들려있는 전시실이나 옥상에 계획된 정원은 자연을 아끼고 보존하고자 하는 그의 생각을 잘 반영하고 있다.

(3) 주요 주택 비교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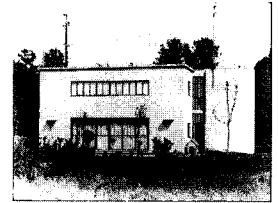
두 사람의 주택작품을 비교해 보면 두 가지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그 것은 첫째, 두 사람 모두 구조와 간막이 벽을 구분하고자 노력하였다는 사실이며 둘째, 주택에 형태를 부여하기 위해 기하학적 곡선을 사용하였다는 사실이다. 두 사람은 모두 주택의 기능을 중시한 작가로 평면형태가 구조에 의해 지배받는 전통적 주택의 한계를 극복하기 원했으며 그 한계를 극복하는 방식으로 주택의 구조와 벽을 분리시키는 방안을 생각하였다. 이 같이 같은 목표를 가지고 구조와 벽을 분리시키고자 하였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이러한 생각에서도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기능에 적합한 평면을 구성하겠다는 목표 외에 두 사람은 각기 다른 부수적 목표를 갖고 있었는데, 두 요소의 분리를 통해, 미이스는 자유롭게 유동하는 실내공간을 추구한 반면 꼬르뷔제는 다양한 곡선벽을 적용, 형태가 풍부한 실내를 짓고자 하였다. 두 사람의 주택에서 기하학적 곡선벽의 사용은 사용의 적극성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사각형 형태가 주를 이루는 미이스의 주택에서 이따금 보여 지는 반원의 곡선벽이 주로 계단실이나 거실에 제한적으로 사용되어 딱딱한 공간을 부드럽게 완화시켜 주는 것과 비교하여 꼬르뷔제의 기하학적 곡선벽은 다양한 모양으로 계단과 욕실의 벽, 여러 모양의 벽가구에 적용되어 공간을 풍요롭게 하여 준다.

두 거장의 주택작품의 차이점은 실내공간의 구성과 비례가 어떻게 다른가, 미적 가치는 어떻게 주어지고 있는가를 비교해 찾을 수 있다. 먼저 공간적 관점에서 이들의 주택을 비교해 보자. 미이스 주택의 실내가 수평적인 것에 비교하여 꼬르뷔제 주택의 실내는 수직적이며, 미이스의 실내가 최소한의 시각적 차단만을 담보한 채 자유롭게 유동하는 실내인 것과 비교하여 꼬르뷔제의 실내는 단면적 변화가 있는, 밤과 낮의 공간 구분이 뚜렷한 실내이다. 그렇다면 미적 관점에서 바라본 두 사람의 주택은 서로 어떻게 다를까? 고전적 원칙에 충실한 미이스 주택의 아름다움이 질서, 기품, 균제미에 있다할 수 있는 반면 다양한 기하학적 형태요소가 적용된 꼬르뷔제의 주택의 아름다움은 조각과 같은 조형성에서 찾을 수 있다. 미적 가치를 창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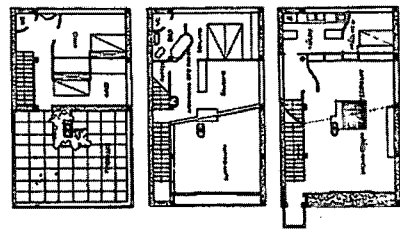
하기 위해 두 사람이 사용한 대표적 방법을 꼽는다면, 전체적인 통일성을 구하고 구성요소들 사이에 질서와 리듬을 부여하기 위해 그리드를 활용한 미이스의 방법과 형태적으로 풍부한 주택이 되게 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요소를 개발하고 기하학적 형태를 적용한 꼬르뷔제의 방법을 비교하여 꼽을 수 있겠다. 혹자는 사각상자 모양의 간결한 미이스의 주택이 다양한 형태요소를 활용하는 꼬르뷔제의 주택에 비해 형태적으로 빈약하다 말하기도 하지만 미이스의 주택에서 이러한 문제는 공간을 빛나게 하는 다양한 재료들에 의해 극복되어진다. 크롬 도금한 철제 기둥과 다양한 색조의 유리, 매끄러운 가죽과 풍부한 문양의 돌 등은 자칫 건조하게 흐를 수 있는 미이스의 주택을 현대적 감각의 세련된 주택으로 강화시켜 준다. 재료적인 관점으로만 비교한다면 흰색 페인트로 일관된 꼬르뷔제 주택의 실내는 실로 단순하다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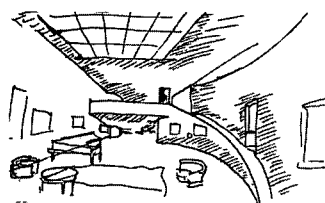
<그림 10> 보크레손 주택 실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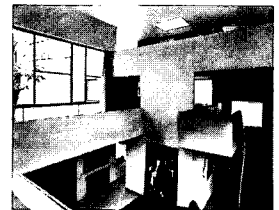
<그림 11> 보크레손 주택 외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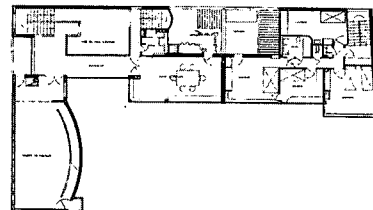
<그림 12> 시트로안 주택 평면도



<그림 13> 라 로쉬 주택 전시 홀



<그림 14> 라 로쉬 주택 현관 홀



<그림 15> 라 로쉬 주택 2층 평면도

3.3. 대표적 주택작품 비교

(1) 판스워드 주택

시카고 교외, 폭스 강 강변에 세워진 판스워드 주택(Farnsworth house, 1950)은 미국 이주 후, 발전된 미이스 주택을 잘 설명해주는 대표적 주택작품이다. 판스워드 주택은 첫째, 구조요소를 드러내는 것 외에 별개의 형태요소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둘째, 고전적인 디자인의 원칙을 존중한다는 점에서 셋째, 뼈대와 외피의 구분이 명확하며 넷째, ‘보편적 공간’¹³⁾의 개념이 적용되었다는 점에서 미이스 주택의 특성을 두루 잘 표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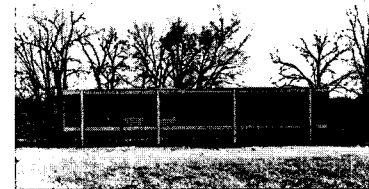
외부에서 보여 지는 판스워드 주택은 8개의 철제 기둥과 바닥판, 지붕판에 의해 간결한 사각상자 모양으로 형태지어 졌다. 이와 같이 구조요소 외에 어떠한 인위적 형태요소를 사용하지 않는 판스워드 주택은 고전적인 디자인 원칙의 적용받아 미적 가치를 받게 된다. 외관을 보면, 지면으로부터 들려진 유리상자 모양의 주택은 수평의 안정적 비례를 취하고 있으며 동일한 간격으로 세워진 기둥을 통해 질서를 부여받고 있다. 기능적으로 폭스 강의 범람에 대비하기 위하여 취해진 조취라 하지만 미이스는 주택의 바닥을 들어움으로써 투명한 유리주택이, 조형적으로, 대지 위에 살짝 들려져 보이도록 의도하였다. 주택의 네 모서리를 벗어나 안 쪽에 세워진 기둥 역시 상자형 주택의 들려있는 모습을 더욱 경쾌하게 표현하고 있다. 가장 기초적인 기하학의 형태, 사각상자 모양의 유리주택은 하늘을 향해 자유롭게 가치를 뽐은 나무들과 대비되어 그 형태를 더욱 명확히 하고 있다.<그림 16>

고전적 디자인 원칙의 적용은 실내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미이스는 미적 가치를 이끌어 내는 방법으로 변화와 통일, 균형, 질서와 같은 원칙을 존중하였다. 미이스는 실내 구성요소를 배치할 때 평면의 격자선을 배치의 단위로 활용하였는데, 판스워드 주택의 벽과 가구는 기둥간격을 가로 8, 세로 14로 등분하는 격자선을 배경으로 질서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판스워드 주택은 또한 비대칭적 균형을 선호하는 미이스의 디자인 성향 잘 보여준다. 평면에서, 욕실을 한정하는 코어는 사각형 방의 중심을 살짝 벗어나 위치하고 있으나 주위에 배열된 침대, 테이블, 의자 등의 요소들은 서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어 시각적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부분적으로는, 코어 벽을 배경으로 배치한 세 개의 의자와 탁자 역시 대칭을 벗어난 모양으로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그림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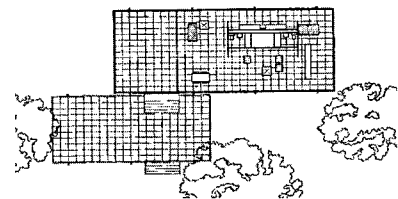
뼈대와 외피의 구분이 명확한 판스워드 주택은 미이스가 1919년에 발표했던 유리 마천루를 회상하게 한다. 미이스는 건물을 계획할 때 건물의 비례를 수평으로 할 것인가 수직으로 할 것인가를 분명히 하였는데, 흔히 사무소 건물에서는 탑과

같은 비례로 수직을 강조하는 한편 주택에서는 수평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생각하면 판스워드 주택은 수직의 유리 마천루 개념이 수평의 주택에 적용된 것임을 알 수 있게 된다. 미이스는 외피를 유리로 입힘으로써 주택의 내부와 외부가 하나가 되도록 의도하였다. 판스워드 주택의 실내는 네 면의 유리벽을 넘어 외부 전원으로 확장되게 되며 풍요로운 외부의 자연경관은 유리벽의 내부, 실내로 이끌어지게 된다.

미이스는 자신이 지은 실내가 변할 수 있는 사용자의 요구에 융통성 있게 대처하기를 원했으며 자신의 실내에 더 많은 자유를 부여하기를 원했다. 벽 뿐 아니라 기둥과 같은 구조요소도 실내의 자유로운 사용을 제한한다고 생각한 그는 구조요소로부터 제한받지 않는 수평의 대공간을 짓는 일에 몰두하였다. 베를린에 세워진 뉴 내셔널 갤러리(New National Gallery, 1968)와는 비교할 수 없겠으나 판스워드 주택에서도 이 같은 보편적 공간의 개념을 확인할 수 있다. 판스워드 주택의 실내는 설비영역을 한정하는 코어를 제외하고 하나의 공간으로 의도되었으며 어떠한 구조요소로부터도 방해를 받지 않도록 계획되었다. 주택의 사용자는, 거칠 것이 없는 실내에서, 가구배치뿐 아니라 행위와 시각의 측면에서 최대한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 보다 자유롭고 융통성 있는 실내를 추구하는 미이스의 생각은 가구의 선정과 배치에서도 나타난다. 그는 필요 이상의 가구 역시 자유로운 공간의 사용을 제한한다 믿었으며 가구를 배치할 때 ‘신중하게 선택된 소수의 가구’¹⁴⁾만을 배치하였다.



<그림 16> 판스워드 주택 외관



<그림 17> 판스워드 주택 평면도

(2) 사보와 저택

파리 근교의 작은 도시, 포아에 세워진 사보아 저택(Villa Savoye, 1931)은 조형적 관점에서, 초기의 여러 설계원칙이 응축되어 나타난다는 점에서 코르뷔제 주택의 정점에 있다 할 수 있다. 사보아 저택에는 구조와 벽의 분리를 골자로 하는 도미

13) Peter Black, 현대건축의 거장/ 미이스 반 데어 로에, Op. cit., p.85

14) Werner Blaser, Mies van der Rohe Furniture and Interiors, (New York: Barron's, 1982), p.53

노 주택의 구조개념이 적용되었을 뿐 아니라 그가 주창한 신건축의 5형식이 빠짐없이 나타난다. 또한 기하학의 절제하는 힘을 활용하여 콘크리트의 무한한 성형성을 제한하는 한편 계단이나 벽난로와 같은 요소들을 활용하여 형태를 창출하는 방식이 적극적으로 적용되어 꼬르뷔제의 주택의 조형성을 가장 잘 보여 준다 할 수 있다. 그 밖에 꼬르뷔제 주택의 주요 주제의 하나인 '건축적 산책로'¹⁵⁾와 옥외공간의 실내적 성격 역시 분명하게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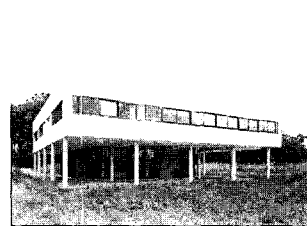
꼬르뷔제 주택의 다섯 가지 원칙은 크게, 대지 혹은 자연과 관계된 원칙과 조형의지 또는 표현의 자유와 관계된 원칙으로 나눌 수 있다. 사보아 저택에서, 필로티는 자동차 통행로와 주차공간, 퇴어진 전망을 확보하게 하며 옥상정원은 외부 자연경관과 바람, 태양을 즐길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게 된다. 한편, 자유로운 평면, 자유로운 입면, 수평으로 긴 창은 두 번째 부류의 원칙으로 분류될 수 있겠는데 이들 원칙은 구조와 벽을 구분하여 벽의 설치를 자유롭게 한 도미노 주택의 구조 개념으로부터 발전되었다.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계획된 사보아 저택의 평면과 입면의 형태는, 구조로부터 해방되어, 층의 기능적 요구와 작가의 조형의지에 의해 정하여 졌다. 각층의 평면은 '자동차의 최소 회전반경'¹⁶⁾, 공간의 기능적 배치, 외관을 간결한 육면체로 정의하고자 하는 의지, 곡면벽을 기용하여 옥상에 형태를 창조하고자 하는 의지에 의해 자유롭게 형태지어 졌다 할 수 있다.<그림 20, 21>

형틀만 가능하다면 어떠한 형태도 지을 수 있는 성형성은 콘크리트라는 재료의 장점이며 동시에 단점이 될 수 있다. 그것은 거의 무한하다 할 수 있는 콘크리트의 형태적 가능성을 적절히 제한하여 질서를 창조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사보아 저택은 기하학을 도구로 자유로운 형태를 억제하여 절제된 형태를 창출한 대표적 주택이라 할 수 있다. 외관상, 1층 기둥부와 2층 육면체, 옥상의 곡면벽으로 구성된 저택은, 부드러운 곡면벽으로 상부를 단장한 단순한 육면체의 주택이 가느 원기둥에 의해 가볍게 들려져 있는, 단정한 형태로 정의되었다.<그림 18> 기하학적 형태의 적용은 곡면벽의 활용에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자동차의 회전을 고려한 1층 현관 벽에 1/2 원이, 옥조를 감싸는 옥실 벽에 1/4원이 적용되었으며 현관홀의 계단 역시 원형으로 계획되었다. 꼬르뷔제의 주택에서 기하학은 이 같이 형태를 제한하는 수단인 동시에 형태를 유발하는 수단이 된다.

사보아 저택의 실내는 꼬르뷔제에 의해 개발된 여러 종류의 형태요소들에 의해 활력을 받는다. 사보아 저택에서 보여 지는 형태요소는 크게 세 부류로 구분할 수 있겠는데, 첫째, 벽체로

부터 독립하여 공간에 노출된 건축요소와 둘째, 벽 혹은 기둥과 일체가 되도록 계획된 가구, 셋째, 1/2 또는 1/4원이 적용된 곡면벽이 그것이다. 세 형태요소의 개발에는 기존의 요소들을 분리하거나 결합하는 방식이 사용되었다. 벽에서부터 떨어져 나와 공간에 노출된 원기둥, 벽난로, 굴뚝 등이 분리의 방법에 의한 것 이라면 기둥 혹은 벽과 같은 건축요소와 합하여져 하나가된 테이블, 선반 등이 결합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거실의 벽난로, 현관홀의 원형계단, 정원에서 보여 지는 기둥과 결합한 테이블 등은 모두 꼬르뷔제에 의해 이끌어낸 형태요소로 그의 주택을 조형적으로 풍요롭게 하여준다.<그림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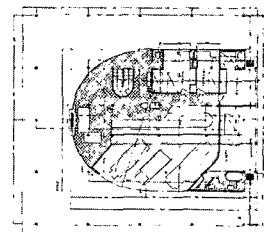
그밖에 사보아 저택에서 찾을 수 있는 특성으로 경사로와 실내적 성격을 지닌 옥외공간을 들 수 있다. 사보아 저택의 경사로는 1층 현관홀과 2층 생활공간을, 2층 생활공간과 옥상의 일광욕장을 연결하도록 의도되었는데, 사람들은 현관에서부터 경사로를 통해 일광욕장에 이르는 동안, 원기둥과 원형계단, 여러 모양의 건축화 가구로 풍요로운 실내공간과 벽으로 둘러져 있는 정원을 산책하게 된다. 2층 정원을 두르는 벽은, 외적으로는 옥상정원을 아늑하게 감싸는 역할을 한다. 벽으로 둘러져 외부시선으로 보호될 뿐 아니라 부분적으로 지붕을 갖고 있는 2층의 정원은 옥외공간이지만 실내와 유사한 성격을 지니게 된다. 꼬르뷔제는 디자인된 옥외공간으로서의 정원이 커다란 유리벽을 통해 거실로 유입되도록 하였는데 옥외공간을 벽으로 둘러 아늑하게 감싸고 이를 실내와 연결시키는 수법은 미스의 뜰을 갖는 교외 주택에서의 수법과 유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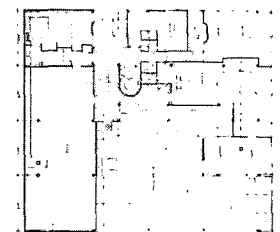
<그림 18> 사보아 저택 외관



<그림 19> 사보아 저택 실내



<그림 20> 사보아 저택 1층 평면도



<그림 21> 사보아 저택 2층 평면도

(3) 대표적 주택 비교분석

먼저, 두 주택에서 보여 지는 공통점을 비교해 보자. 두 주택 사이에 찾아지는 공통점으로 구조와 벽의 분리, 간결한 육면체의 적용, 실내와 옥외공간의 교류, 주택을 지면으로부터 들

15)정금화, Le Corbusier의 주거디자인요소에 관한 연구 / Villa Savoye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환경대학원, 1988), p.46

16)Moos, Op. cit., p.112

어주는 수법을 들 수 있다. 크게 볼 때 공통적으로 보여 지는 이러한 원칙과 수법은 세부적으로는 두 주택에서 조금씩 다르게 적용되었다. 첫째, 두 주택에 나타난 구조와 벽의 분리,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기능적인 목표 외에 각기 다른 부수적 목표를 갖고 있는데, 판스워드 주택에서는 뼈대와 외피를 명확히 구분하여 구조가 순수하게 드러나게 한 반면 사보아 주택에서는 곡면벽의 사용을 자유롭게 하여 저택의 조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둘째, 가장 간결하고 기능적인 입체, 육면체를 기용함에 있어서도 차이는 나타난다. 판스워드 주택의 육면체가 전체 주택의 형태를 정의하는 것과 비교하여 사보아 주택의 육면체는 주택의 한 부분만을 정의한다. 2층을 한정하는 사보아 주택의 육면체는 상부, 일광욕장의 곡선벽과 하부, 질서 정연한 기둥과 조화되어 전체 주택을 이루도록 의도되었다. 셋째, 판스워드 주택의 실내와 사보아 저택의 실내는 모두 옥외 공간과 활발히 교류하고 있다. 그러나 판스워드 주택의 실내가 끝없이 펼쳐지는 자연과 교류하는 것과 비교해 사보아 저택의 거실은 벽으로 둘러진 제한된 옥외공간과 교류하도록 의도되었다. 넷째, 지면으로부터 주택을 띄워주어 주택이 살짝 들려있어 보이도록 한 조형적 수법에는, 판스워드 주택에서는 폭스 강의 범람에 대처하기 위한 기능적 이유가, 사보아 저택에서는 자연의 대지를 보존하고자 하는 철학적 사고가 각각 내포되어 있다.

다음으로, 두 주택의 외관과 실내공간의 차이를 비교하고 여기에 적용된 개념의 차이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두 주택의 특성을 살펴보자. 첫째, 주택의 외관을 비교하면, 판스워드 주택이 별도의 형태요소 없이 구조 자체를 솔직히 드러내는 것에 반해 사보아 저택은 구조와 관계없는 다양한 형태요소를 활용한다. 결과적으로 철과 유리로 지어진 미이스의 주택이 균형 잡힌, 가볍고 투명한 주택으로 표현되는 것과 비교해 콘크리트로 지어진 꼬르뷔제의 주택은 볼륨 있는 조형적 주택으로 표현된다. 둘째, 실내의 관점에서, 판스워드 주택이 최소한의 가구만을 배치하는 것과 비교해 사보아 저택은 적지 않은 건축화 가구를 활용한다. 이는 실내공간에 더 많은 융통성을 주고자한 미이스 생각과 형태를 부여하고자 한 꼬르뷔제 생각 사이의 차이를 단적으로 말하여 준다. 미이스가 가구를 배치할 때 그리드의 격자를 단위로 활용하여 균형과 질서를 부여하고자 한 것과 비교해 꼬르뷔제는 벽난로와 굴뚝, 계단, 건축화 가구를 계획하면서 기하학을 적용하여 형태를 창출하고자 했다. 그렇다면 두 주택에 적용된 건축 및 주택의 개념은 어떠한 차이를 보일까? 판스워드 주택에 나타난 미이스의 보편적 공간의 개념이 변할 수 있는 쓰임에 대처하기 위해 실내에 보다 많은 자유를 부여하고자 연구된 공간의 개념이라 한다면 사보아 저택에 적용된 신건축의 5개념은 작가의 조형의지, 자연보존과 도입에 대한 의지를 바탕으로 한 개념인 것임을 비교해 볼 수 있다.

4. 비교분석의 종합

앞장의 비교분석을 통해 이끌어낸, 미이스와 꼬르뷔제 주택의 특성을 종합하면 아래의 표와 같이 정리될 수 있겠다.

<표 1> 공통점 분석을 통한 특성

공통점	미이스 주택에서의 특성	꼬르뷔제 주택에서의 특성
장식을 배제하며 기능을 중시함	•가장 기능적 형태, 사각형 형태 요소에 의한 평면구성.	•층의 기능에 따라 형태가 변하는 평면.
	•쓰임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융통성 있는 실내공간 추구.	•기능에 따라 실의 구분을 명확히함.
	•자유롭게 유동하는 수평공간	•단면적 변화가 있는 수직공간.
구조와 벽체의 분리	•뼈대와 외피의 구분이 명확한 투명한 주택.	•작가의 조형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곡선벽 사용.

주택을 지면으로부터 띄워 주는 수법, 외부공간을 벽으로 두르고 이를 실내에 연결하는 방식, 반원의 곡선벽을 활용하여 실내에 형태를 주는 방식은, 제한적만, 두 사람의 주택에서 유사하게 발견되어 있는데 이는 같은 시대를 산 두 거장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받았음을 입증한다 할 수 있음.

<표 2> 차이점 분석을 통한 특성

차이 구분	미이스 주택의 특성	꼬르뷔제 주택의 특성	
건축적 특성 차이	건축관에 따른 •재료, 기술을 존중하며 구조를 솔직히 드러내는 건축 •별도의 형태요소를 기용하지 않으며 구조요소를 디자인요소로 활용.	•형태를 추구하는 조형적 건축. •곡선벽, 계단, 벽난로와 굴뚝 등 구조와 관계없는 형태요소 적극 활용.	
	디자인 원칙, 수단에 따른 •균형, 비례, 리듬을 부여하기 위해 고전적 디자인원칙을 엄격히 적용.	•형태를 제한하고 창출하는 수단으로 기하학을 적극 활용.	
주택외관의 특성 차이	건축관에 따른 •뼈대와 외피의 구분이 명확한 주택. 꾸밈없는 주택	•곡선벽 등 형태요소를 사용하여 3차원적 변화가 있는 조형적 주택.	
	재료에 따른 •철과 유리를 사용하는 가볍고 투명한 주택.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부피감 있는 주택.	
주택실내의 특성 차이	공간에 따른 •최소한의 시각적 차단만을 담보하는 흐름이 자유로운 공간. •자유로운 수평공간.	•기능에 따른 공간구분이 엄격한 실내. •단면의 변화가 있는 수직적 공간.	
	디자인원칙 및 요소에 따른	•유리벽을 넘어 외부와 교류하는 공간.	•다양한 형태요소를 활용한, 조형적으로 풍요로운 공간.
		•최소한의 가구만을 허용, 공간의 융통성 부여.	•곡선벽과 계단, 벽난로와 굴뚝, 건축화 가구 등 다양한 요소를 활용하며 기하학 형태 적용, 형태 창출.
		•구성요소의 배치에 그리드를 활용, 변화와 통일, 리듬 부여. •가구배치에 비대칭적 균형 추구.	•건축적 요소의 분리 또는 결합을 통해 형태요소 개발. •건축적 산책로를 통한 공간 조망.
실내 재료에 따른	•차갑고 매끄러운 재료의 조화, 밝은 색과 어두운 색의 대비를 통해 세련된, 현대적 감각 창출.	•하얗게 칠하여진 실내는 공간의 조형성을 잘 드러냄.	

5. 결론

미이스와 꼬르뷔제는 구조와 기능, 조형과 같은 건축의 기본 문제를 충실히 해결하고자 노력한 작가였으며 디자인의 원칙, 기하학과 같은 역사적 원칙과 방법을 존중한 작가였다. 뿐만 아니라 시대의 새로운 재료를 사용하면서 재료에 맞게 원칙을

적용시킬 수 있는 창의적인 안목을 가진 작가였다. 철과 유리 등 새로운 재료를 사용하면서 미이스는 자신의 감각으로 고전적 원칙을 적용, 간결한 상자모양의 주택을 탄생시켰는데, 고전 건축의 모든 장식을 제거하고 가는 철제 구조만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투명한 상자모양의 주택은 사람들을 매료시키기에 충분했다. 꼬르뷔제 역시 기하학 이라는 고전적 수단을 창의적으로 적용하면서 콘크리트라는 새로운 재료에 형태를 부여하였다. 사실, 돌이나 벽돌을 차곡차곡 쌓는 전통적인 공사법과는 공법이 전혀 다른 재료, 죽과 같이 만든 재료를 형틀에 부어 공간을 짓는 콘크리트는 이제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기준과 새로운 방식을 필요로 했다. 그 시대의 회화를 연구하고 기계 및 공업 미술을 분석하는 노력 끝에 기하학을 새로운 원칙으로, 수단으로 재발견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두 사람은 새로운 재료에 자신의 창의적인 안목으로 과거의 원칙을 적용하여 그 때까지 역사에 없었던 자신들만의 새로운 건축을 구축하였다.

미이스와 꼬르뷔제의 주택을 간략하게 정리한다면 이러하다. 미이스의 주택이 꾸밈없이 구조를 정직하게 표현하는 주택인 것에 반해 꼬르뷔제의 주택은 보다 형태를 생각한 조형적 주택이며 미이스의 주택이 가장 기초적인 형태, 사각상자 형을 벗어나지 않는 것에 반해 꼬르뷔제의 주택은 다양한 기하학적 곡선이 적용된 주택이다. 미이스의 주택이 철과 유리를 사용한, 가볍고 투명한 주택인 것과 비교해 꼬르뷔제의 주택은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3차원적 변화가 풍부한 주택이며 미이스 주택의 실내가 수평적인 실내인 것에 반해 꼬르뷔제 주택의 실내는 단면적 변화가 있는 수직적 실내이다. 또한 미이스의 주택이 고전적인 디자인 원칙에 의해 절제되고 미적 가치를 부여받는 것과 비교해 꼬르뷔제의 주택은 기하학에 의해 절제되고 형태를 부여받는다. 반듯한 기단 위에 균형을 잡은 상자 형 유리주택, 미이스의 주택이 이성적인 아름다움을 나타낸다면 부드러운 곡선벽이 적용된 부피 있는 주택, 꼬르뷔제의 주택은 보다 감성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한다 하겠다.

경제가 발전하며 우리의 건축과 실내도 발전을 거듭해 왔다.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재료와 공법이 소개되고 있고 컴퓨터를 활용한 다양한 설계법이 시험되고 있다. 그러나 재료와 공법의 발달이, 디지털 툴의 발전이 건축과 실내의 발전을 담보하지는 않는다. 주체하기 어려울 정도로 쏟아지는 새로운 재료와 공법은 오히려 디자이너들을 혼돈에 빠뜨리기 쉬우며 컴퓨터 프로그램을 익히기에 바쁜 학생들은 진정 필요한 디자인의 기본을 익히는 일에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오늘날과 같이 변화가 빠른 시기에 건축의 기본을 중시하고 원칙에 충실했던 두 거장의 작품을 돌아보는 일은 의미가 있다. 창의적인 안목을 가지고 변화의 시기를 극복한 두 거장의 작품을 통해, 그들이 세운 원칙과 방법과 어휘를 통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디자인이 모색되어 질 수 있다고 믿는다.

참고문헌

1. Benton, Tim, The Villas of Le Corbusier 1920-1930,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90
2. Blaser, Werner, Mies van der Rohe / The Art of Structure, Birkhauser Verlag: Basel, 1993
3. Blaser, Werner, Mies van der Rohe Furniture and Interiors, New York: Barron's, 1982
4. Giedion, S., Space Time and Architecture,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1973
5. Black, Peter, 현대건축의 거장/ 미이스 반 데어 로에, 윤정섭 역, 서울: 건우사, 1989
6. Black, Peter, 현대건축의 거장/ 르 꼬르뷔제, 윤정섭 역, 서울: 건우사, 1993
7. Blaser, Werner, 미스 반 데어 로에, 송춘식 역, 서울: 대우출판사, 1983
8. Boesiger, W. and Stonorow, O. ed., Le Corbusier, 8 Vols., 르꼬르부지에 작품연구회 편역, 서울: 집문사, 1991
9. Moos, Stanislaus Von., 르 꼬르뷔제의 생애 / 건축의 신화, 최창길 외 역, 서울: 기문당, 1989
10. _____, Le Corbusier, 10 Vols., 편집부 편역, 서울: 도서출판 보원, 1994
11. 정금화, Le Corbusier의 주거디자인요소에 관한 연구 / Villa Savoye를 중심으로, 석사 학위논문, 홍익대학교 환경대학원, 1988
12. Architectural Monographs, Mies van der Rohe, 이민 역, 서울: 공간도서, 1989

<접수 : 2004. 8. 31>